

예레미야 애가 4장

예레미야 애가 3:1-39

탄식에서 소망으로

1. '예레미야 애가 3장'의 특징

- (1) 히브리어 알파벳(22개) 전체의 3배인 66절 예) 'a'1,2,3절+ ...'z'64,65,66절
- (2) 새로운 인칭의 특징 : 1인칭 - 남자(1절), 우리(22절, 40-46절)
- (3) 탄식에서 그치지 않는다. 기도로 나아간다.

1-18절	19-39절	40-41절	42-47절	48-54절	55-66절
나의 탄식	나의 기도	우리의 다짐	우리의 기도	나의 탄식	나의 기도

가.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(3:1-18절)

1. 하나님이 악한 목자처럼 나를 학대하심 (1-3)

(애가3:1) 여호와와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

- (1) 1절 의역: 나는 그(여호와와)의 진노의 막대기로 고난당하는 바로 그 남자(사람)이다. (2) 여호와와 지속적인 징계가 강조

2. 죽음 같은 무기력을 경험하는 나(시인, 선지자) (4-6)

- (1)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
- (2) 4절: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- 강조형. 흑독하고 끔찍한 고통
- (3) 에우셨다: 전쟁과 관련된 표현

3. 감옥에 갇힌 자처럼 무력함을 고백(7-9)

- (1) 나를 중죄인처럼 쇠사슬로 묶으시고(7절), 기도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(8절), 다듬은 돌(왕과 귀족들의 건축 재료)로 길을 막으신다.

4. 예상치 못한 재난에 속절없이 당함(10-13)

- (1) 재난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단어들: 꿈, 사자, 몸을 찢으시다
- (2)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
허리(히. 킬야)-콩팥(고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장기).

5. 총체적인 난관과 절망(14-18)

- (1) 14-16절. 주위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과 비방의 고통
- (2) 17-18절. 여호와께서 내게서 평강을 제하여 버리심,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김
- 기독교 신앙의 역설의 신비.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.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여전히 인정. 19절부터 나오는 대반전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.

나. 하나님의 신실하심 (3:19-24절)

6. 소망의 이유(19-22)

- (1) 19절. 기억하소서(히브리어 원문)
 - (2) 선지자(시인)가 절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1가지가 있다. 그리고 이 1가지가 선지자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. 진멸되지 않음이다.
 - (3) 선지자와, 자기 백성이 진멸되지 않음의 근거를 고백한다.
- (애가3:22)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**
 -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. 시내 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하나님.

7. 여호와와 나의 기업(23-24)

- (1) 현실과 상황과 환난을 초월하는 1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. 바로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다 라는 사실이다.
- (애가3:23-24)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**
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

다. 심판에 대한 묵상 (3:25-39절), 변화된 시인의 시선.

8. 선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징계 (25-30)

- (1) 25-27절의 특징: 선하시다/좋다(토브, טוב)로 시작.
- (2) 참 신앙의 진가가 여기에 있다.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.

9. 희망을 동반한 하나님의 징계 (31-39)

무엇이 희망이 되는가?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2가지 성품

- (1)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: 31-33절
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며(31절) 그는 풍성한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(32절), 사람에게 근심케 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(33절).
 ☞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.

- (2)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운영하신다: 34-39절
 만일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고통 당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. 선하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. 하나님은 분명 이 언약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행하실 것이다.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근거가 된다.
 ☞ 치료하시는 하나님,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서 희망의 이유이다.

예레미야 애가 3장 1-39절 정리.

- 1.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기억하자
- 2. 고통과 환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